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신 영 명*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중기 자연소재시조에 나타난 형상적 국면을 서울과 시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시골은 서울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달리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시골로 내려온 서울'과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두 국면을 통해 17~18세기 자연소재시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골로 내려온 서울'의 특징을 가진 작품으로는 김광옥의 〈울리유곡〉, 조존성의 〈호아곡〉, 진청 만황청류의 강신 관련 작품을 들 수 있다.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특징을 가진 작품으로는 이휘일의 〈전가팔곡〉, 진청 무명씨 수분에 실린 작품, 위백규의 〈농가구장〉을 들 수 있다.

전원과 전가 형상의 작품이 '시골로 내려온 서울'의 모습을 담은 자연소재시조라면, 자영농 형상의 작품은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모습을 담은 자연소재시조다. 전자가 서울에서 시골이란 외출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후자는 시골에서 서울이란 상경의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는 역방향 이동의 허용이란 유연성을 지니지만, 후자는 정방향 이동마저 원수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드디어는 이동의 역동성마저 소멸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핵심어 : 자연소재시조,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강호, 전원, 전가, 자영농

* 상지대

1. 문제제기

[A0] 崔行首 僻달힘 ㅎ새 趙同甲 긔달힘 ㅎ새
 둑뻘 게뻘 오려點心 날 시기소
 每日에 이령성 굴면 ㅁ슴 시름 이시라

[B0] 世上의 브린 몸이 畎畝의 늘거 가니
 밧것일 내 모르고 ㅎ는 일 무스 일고
 이 中の 憂國誠心은 年豐을 願ㅎ노라

[A0]은 김광욱(1580~1656)의 <울리유곡>의 마지막 작품이며, [B0]은 이취일(1619~1672)의 <전가팔곡> 중 제1곡 원풍이다. [A0]과 [B0]은 얼마나 같고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잠정적이지만 [A0]은 전가시조로 [B0]은 자영농시가로 부르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내린 바 있다.¹⁾ 이때 전가시조가 전대 강호시조의 분화·하강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영농시는 재지사족의 성장·상승에서 나온 것이 된다. 이 결론을 전면 수정할만한 상황이 아직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재고해야 할 측면 또한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전가시조 형성의 배면에는 ‘도학적 근본주의의 퇴색’과 ‘사대부 일각의 항반화 추세’라는 정치사회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항반화 추세는 18세기 이후의 역사 상황이므로 그 형성 요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청 만황청류의 524번 “李座首는 암쇼를 타고 金約正은 질장군 메고” 같은 작품을 자영농시가로 보는 견해 역시 수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 작품을 필자는 자영농시가에 귀속시킨 적이 있는데, 가을 추수 후의 강신 현장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인용

1) 신영명, 「전가시조인가, 자영농시인가인가」, p.118. 이하 전가시조와 자영농시의 성격에 관한 논쟁 상황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한 [A0]과 같은 유형의 작품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

그러나 [A0]과 [B0]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이들 유형 작품의 담당층이 가진 정치 및 사회경제사적 편차에서 나온다. 이 편차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은 적잖은 준비가 필요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다. 이 글은 그 과정의 하나로 [A0]과 [B0]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작품론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박한 목적을 가진다. [A0]과 [B0] 유형 작품의 담당층은 모두 재지사족인가? 이휘일은 재지사족이라 부를 수 있지만, 김광육은 그렇게 부르기 어렵다. 굳이 부른다면 김광육은 재경사족 정도가 적당하다.³⁾ [A0]과 [B0]는 모두 시골의 형상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서울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동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0]이 ‘시골로 내려온 서울’이라면 [B0]은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이 된다. 그러면 시골 대 서울의 관점에서 두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이들 유형의 작품이 시가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시골로 내려온 서울

[A1] 아히야 粥早飯 다오 南畝에 일 만해라
 서투론 싸부를 늘 마조 자부려노
 두어라 聖世躬耕도 亦君恩이시니라

2) 김창원, 「17~1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p.120 참조.

3) 그러나 재경사족이란 용어 또한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인으로서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재경관인이란 용어가 적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지사족의 상대적 개념을 부각하기 위해 잠정적이지만 재경사족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A1]은 조존성(1553~1627)의 〈호아곡〉 제3곡 남묘궁경이다. 이 작품은 계축옥사(1613) 이후 서강 용호 근처의 별서에서 칩거할 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칩거는 이른바 당쟁하의 명철보신을 위한 귀거래 또는 은거가 된다. 전대 강호시조는 이 공간을 강호라 명명한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강호는 전원과 전가 또는 자영농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변모한다. 전원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는 신계영(1577~1669)의 〈전원사시가〉를 들 수 있는데, 제2곡 “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 小園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같게 흐여라”와 같은 작품이 그것이다. 자영농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는 이휘일의 〈전가팔곡〉 제2곡 “農人이 와 이르더 봄 왔니 바티 가세/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싹 내니/ 두어라 내 집부더 하랴 늙 하니 더욱 도타//”와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⁴⁾ 그러면 [A1]은 전원과 전가, 그리고 자영농 형상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가?

중장 “서투론 싸부를 늘 마조 자부려뇨”에는 농경 현장에서의 박진감이 일정 정도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A1]은 전가의 형상을 가진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화자와 상명하복의 관계에 놓인 ‘아히’의 등장은 전원의 형상을 보여주는 한 징표가 된다. 더구나 ‘亦君恩’에서는 강호의 형상마저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A1]의 공간은 전원인가 전가인가, 아니면 강호인가? 전원을 중심으로 강호와 전가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혼합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A1]은 조선중기 자연소재시조의 다양한 모습을 한 작품 안에 모두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신영명, 「전원과 전가의 형상」에서는 이를 전가 형상을 가진 작품으로, 「전가 시조인가, 자영농시가인가」에서는 자영농 형상을 가진 작품으로 각각 다르게 파악한 바 있다. 이휘일의 〈전가팔곡〉은, 당분간의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지만, 앞서의 논의를 정리해 재지사족의 성장·상승을 반영하는 자영농 형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전원, 전가 또는 강호는 모두 서울의 대립항으로서의 시골에 속한다. 곧 그곳은 정치현실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대척점에 선다. 서울은 출, 시골은 처의 공간이다. 원칙적으로 출과 처는 상호배타성을 띠지 않는다. 다만 때의 선택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서울과 시골은 서로 넘나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배타성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B0]과 같은 자영농시가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대신 이휘일은 [B0]에서 그 갈등을 '年豐'으로 푼다. 곧 '年豐'을 정계진출로서의 출과 동일하다고 인식하면서 배타성에서 오는 갈등을 일정 정도 해소한다.

반면 조존성의 [A1]은 서울과 시골의 넘나들이 있다. 여기서 화자는 비록 남묘의 전원에 은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위상은 군은의 자장 안에 있다. 군은의 자장 안에 있는 은거지로서의 자연은 강호가 된다. 그리고 강호의 다른 한쪽 끝에는 전가가 있다. 전가는 군은의 직접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변방의 자연이다. 전원은 강호와 전가 사이에 있다. 이 혼합 현상은 서울을 시골에 이식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곧 여기서 시골은 있는 그대로의 시골이 아니라 서울이 만든 시골이 된다. 당쟁의 와중 정치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화자는 자연스레 전가의 형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실제 그가 머문 공간은 물리적으로 서울 근교를 벗어나지 않는다.⁵⁾ 곧 화자의 정치적 위상은 심리는 변방이지만, 현실은 근교에 머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과 늘 소통하는 시골, 이것이 바로 조존성이 추구한 자연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시골로 내려온 서울'이 된다. 그러므로 [A1] 중장 "서투론 싸부를 늘 마조 자부려뇨"와 같은 전가적 형상은 직접생산자로서의 경험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시골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관념적으로 형상화한 것뿐이다. 이것은 당쟁하 은거 또는 귀거래의 삶을 과장

5) 김창원, 앞의 글, p.115. 이 논의에 따르면 근교는 경지와 향제를 연결하는 별서의 공간이 된다.

함으로써 자신의 불우한 정치적 처지를 보상받고자 한 욕망의 한 다른 표현이다. 이 과장을 좀더 멀리 밀고나가면 전가 형상이 되며, 축소해 서울을 의식하면 다시 강호 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A1]의 화자는 전원에 서서 전가와 강호를 서성이듯 거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골에다 서울로 상징되는 이상적 삶을 이식하고자 욕망의 다른 표현이다.

‘시골로 내려온 서울’의 모습은 김광옥의 [A0]에서도 보인다. 김광옥은 계축옥사 이후 10년간 행주 율리의 별서에 머무르는데, [A0]은 이 귀거래 때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최행수는 권가정 최옥을 가리킨다.⁶⁾ 김광옥의 증손 김시민(1681~1747)의 시 <悼杏洲二崔老名錫少名尙久>에 최행수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⁷⁾ 최옥은 일찍 회인, 낭천, 문외의 세 현을 맡아 다스리다 권귀에 고개 숙이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세 번 벼슬에서 물러난 후, 농묘에 뜻을 두고 말년을 유유히 자처한 바 있다고 한다.⁸⁾ 김광옥은 행주에 내려와 최옥과 같은 인물과 교류하면서 별서경영에 몰두한다. 그 모습은 <권가정기>에 나타난 대로 정자에 올라 농사를 창술·지휘하던 최옥의 경우를 통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⁹⁾

별서경영은 중앙정계에서 물러난 불우한 정치적 입지를 보상하기 위

6) 勸稼亭의 이름은 최옥이다.(金光煜, <題幸州崔君木+都勸稼亭>, 『竹所集』, 권3 참조.)

7) 鄉里日蕭條 非復曩昔時 長老今盡歿 少壯亦漸稀 二崔卽世交 其先勸稼亭 吾祖舊歌曲 行首傳姓名(金時敏, 『東圃集』, 권4.)

8) 崔侯以謹厚之行 儒雅之操 不遇於時 棲棲於州郡之間 而曾爲懷仁狼川文義三縣也 率以慈惠爲先 農桑爲本 其所出治施政 儘有可觀 而坐不能輩事權貴 三黜而歸於野 無幾微介乎其中 怡然自適於農畝 有終焉之計(吳道一, 『勸稼亭記』, 『西坡集』, p.342.)

9) 方其西疇春盡 膏雨盈科 穀苗方興 崔侯登斯亭而倡率之 則僮手齊動 鋤耨合集 油油者植之 傑傑者薤之 秋風正高 萬顆垂實 徧野成黃 崔侯登斯亭而指揮之 則僮雇并聚 鎌鉉俱作 穢穢者刈之 洋洋者穫之(같은 글, 같은 면.)

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를 통한 경제적 기반의 확충은 정치재개의 발판을 만드는데 도움도 되지만,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있어서도 효과가 크다. 서울을 벗어난 데서 오는 시름은 별서생활을 통해 해소된다. [A0]의 종장 “每日에 이렇성 굴면 으슴 시름 이시랴”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름은 서울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것을 풀기 위해 김광옥은 서울의 화려함을 시골에다 이식한다. 곧 서울이 시골로 내려온 것이다. “꼭달힘, 곳달힘, 뚝뚝, 게뚝, 오려點心”은 자연의 소박한 정취라기보다는 서울의 화려한 외출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A2] 李座首는 암소를 타고 金約正은 질장군 메고
南勸農 趙堂長은 취하여 뷔거르며 杖鼓 舞鼓에 등더럭궁 춤추는괴야
峽裏에 愚氓의 質朴天真과 太古淳風을 다시 본 듯하여라

[A3] 孫約正은 點心 출히고 李風憲은 酒肴를 장만호소
거문고 伽倻고 奚琴 箏策 杖鼓 舞工人이란 禹堂長이 드려오시
글 짓고 노래 부르기와 女妓 女花看이란 내 다 담당하리라

[A2]와 [A3]은 진청 만황청류에 실린 524번과 525번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 [A2], [A3]은 강신 현장을 노래한다. 그리고 그 양상은 [A0]과 비슷하다. 다만 [A2]는 “質朴天真, 太古淳風”이란 표현에도 불구하고 [A0]보다 훨씬 흥청거리는 기분을 풍긴다. 종장의 “취하여 뷔거르며 杖鼓 舞鼓에 등더럭궁 춤추는괴야”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A3]에 와서는 아예 유흥의 분위기마저 연출한다. 곧 “거문고, 伽倻고, 奚琴, 箏策, 杖鼓, 舞工人”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생의 치마를 들추고 꽃을 보는 풍류로까지 진행된다. 여기서 ‘시골로 내려온 서울’이 드디어 외출의 수준을 넘어 그곳을 도시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청구영언』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의 시대를 반영한 가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서울과 그 근교에 형성된

예술사적 분위기를 일정 정도 감지할 수 있다.

3.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B1] 農人이 와 이르디 봄 왓니 바퇴 가세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싸보 내니
두어라 내 집부디 하라 늬 하니 더욱 도타

[B2] 치위를 마글선정 구티야 비단웃가
고픈 비 메을선정 山菜라타 관계하라
이빳기 잡시름 업스면 괴 죠흔가 흐노라

[B3] 둘러내자 둘러내자 길촌 골 둘러내자
바라기 역괴를 골골마다 둘러내자
쉬 짓튼 긴 스래는 마조 잡아 둘러내자

[B1]은 이휘일의 <전가팔곡> 제2곡이며, [B2]는 진청 무명씨 수분에 실린 작품이다. [B3]은 위백규(1727~1798) <농가구장> 제3곡 운초다. [B1]의 공간은 앞집에서는 쟁기를 내고 뒷집에서는 따비를 내어 함께 농사를 짓는, 이웃간의 인정이 살아있는 시골 마을이다. 그 가운데 화자는 마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한다. 종장의“두어라 내 집부디 하라 늬 하니 더욱 도타”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은 마을 안에서만 관철되지, 시골 너머 서울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B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자는 바깥일을 모른 채 견묘 현장에서 살아간다. 대신 경제적 안정을 통해 서울로 오르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달랜다.

진청 무명씨 수분에 실린 [B2]에는 이른바 수졸안빈의 미학이 담겨

있다. 화자는 아마도 소농으로서의 자영농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곧 사회경제적 제약 속에 묶여 있다. 그러나 추위를 맨몸으로 막거나 산채로 고픈 배를 채울지언정 자영농으로서의 삶은 '잡시름'이 없어 좋기만 하다. 곧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 후에 일어날 위험, 가령 봉당정치의 와중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는지 할 경우 벌어질 여러 가지 일을 염두에 둔다면, 수졸안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때, 자영농의 자유 추구는 세상을 향해 그 빛을 펼치다 다시 마을 안의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는 형국을 맞이한다.¹⁰⁾ 시골이 서울로 오르지 못한 것이다.

[B3]은 “농부화의 추세에 놓인 향족사족층이 서생의 자리에서 자영농의 자리로 이전해 가는 단계를 전형적으로 반영”¹¹⁾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B3]은 [B1]보다 훨씬 더 농경현장에 밀착해 있다. 곧 “바라기, 역괴”와 같은 김매기의 현장감을 더하는 구체적 물명이 등장할 뿐 아니라, 종장 “쉬 짓튼 긴 스래는 마조 잡아 둘러내자”에서 보는 바처럼 김매기의 어려움을 협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영농방법상의 구체성이 돋보인다.¹²⁾ 여기에 이르면 서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A4] 黃河水 ㄹ단 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草野群賢이 다 니러나닷 말가
어즈버 江山風月을 놀을 주고 갈소니

이 작품은 김광옥의 <울리유곡> 제14곡이다. 시골로 외출 나온 서울은 언젠든 복귀가 가능하다. 성인이 나서니 초야군현이 다 떨쳐 일어나

10) 진청 무명씨 수분에 실린 작품의 해석은 신영명, 「전가시조인가, 자영농시가인가」, p.114 참조.

11)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연구』, p.195.

12)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신영명, 「전원과 전가의 형상」, p.100 참조.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 인조반정이 그것이다. 아깝지만 ‘江山風月’은 그
 냥 거기다 놓고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18세기 위백규의 경우 그
 러나 돌아갈 서울은 없다. 대신 ‘牛背草笛’만이 그의 귀가를 재촉한다.
 다음 작품은 위백규의 〈농가구장〉 제6곡 석귀와 이휘일의 〈전가팔곡〉
 제8곡 석이다. [B4]에는 [B5] 〈전가팔곡〉 제8곡에 아직도 남은 강호미
 학의 흔적¹³⁾마저 사라진다.

[B4] 돌아가자 돌아가자 헐지거다 돌아가자
 개변의 밭을 짓고 흙의 메고 돌아올제
 어디서 牛背草笛이 흙피 가자 비아논고

[B5] 西山에 헐지고 풀긋데 이슬 난다
 호뽀를 돌너메고 돌 되여 가자스라
 이 中의 즐거운 뜻을 닐러 무슴헐리오

위백규의 〈농가구장〉은 18세기 후반 시가사의 한 상황을 반영한다.
 서울과의 소통이 어려울 때 시골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쌓는다. 대신 그
 울타리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휘일의
 〈전가팔곡〉과 진청 무명씨 수분의 작품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
 나 일향지배가 힘들어질 경우 문중을 중심으로 한 족적 유대를 강화한
 다. 18세기 이후 동족촌락의 형성은 시골의 이러한 형편을 반영하는 한
 현상이다.

[B6] 醉訶나니 늘그니요 웃느니 아회로다
 흐튼 순비 흐린 술을 고개 수겨 권홀 때에
 뉘라셔 흙장고 긴 노래로 츠레춤을 미루논고

1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이황 〈도산십이곡〉의 제6곡 “이 둥에 往來風
 流를 닐어 므슴홀고”와 이이 〈고산구곡가〉 제6곡 “黃昏에 낙대를 메고 帶月歸
 를 흐노라”를 차용하고 있다.

〈농가구장〉 제9곡 음사다. 이 작품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의 사강회 장면을 보여준다. 취흥이 오른 장로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장고소리가 어우러져 흥취가 고조된 가운데, 서로가 술을 권하며 한해의 풍년을 자축한다.¹⁴⁾ 동족촌락 안에서의 이러한 유대강화는 이 시기 예술사의 변화를 알려주는 한 증거가 된다.

4. 중심과 주변의 시학

한국시가사에 있어서 자연소재시조는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흔히 이들 작품은 강호시조로 명명되는데, 그 특성은 정치와 자연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요약할 수 있다. 강호시조는 16세기 작품이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17세기로 들어오면서 자연소재시조에는 전원이나 전가 또는 자연농의 형상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족의 정치 및 사회경제사적 성격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탐구는 대체로 사적 변모양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사족의 성격은 통시적 측면만을 고찰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사족의 역사적 성장은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향촌사회 곧 시골에서 중앙정계가 있는 서울로의 상경이 가능하나 아니냐에 따라 성장의 성패가 결정된다. 강호시조 형성 담당층인 16세기 사림은 바로 상경에 성공한 집단이다. 17세기 이후 사림은 분화의 과정을 겪는데, 이에 따라 자연소재시조에도 전원이나 전가의 형상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난다. 한편 임병양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족에 의해

14) 이 작품의 해석은 권순희, 「농요로 읽는 〈농가구장〉의 세계상과 표현 미학」, p.140 참조.

자영농 형상의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전원이나 전가 형상의 작품이 사람의 분화·하강을 반영하는 측면을 갖는다면, 자영농 형상은 재지사족의 성장·상승을 반영하는 측면을 갖는다.

사람의 분화는 서울에서 시골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시골로 내려온 서울'의 형상은 바로 그로 인해 만들어진 현상이다. 한편 임병양란 이후 재지사족의 성장은 향촌사회의 지배권 획득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이룩한 경제적 성장은 정치적 진출의 한 치환물이 된다. 이 성장은 마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졸안빈의 미학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수졸안빈은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작품이 보여주는 한 미학적 형상이다. 이 한계는 18세기 이후 더욱 심화되는데, 위백규의 〈농가구장〉 같은 작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전원과 전가 형상의 작품이 '시골로 내려온 서울'의 모습을 담은 자연소재시조라면, 자영농 형상의 작품은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모습을 담은 자연소재시조다. 전자가 서울에서 시골이란 외출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후자는 시골에서 서울이란 상경의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는 역방향 이동의 허용이란 유연성을 지니지만, 후자는 정방향 이동마저 완수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 자영농 형상의 작품은 이동의 역동성마저 소멸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16세기 강호시조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치고 들어와 하나의 문학적 성취를 이룩한 바 있다. 그런데 전원과 전가 형상의 자연소재시조는 중심이 변방에 이식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중심의 분화이자 하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심의 확산이기도 하다. 그것은 변방이 중심과 거리가 멀지 않은 근교에 존재한 상황과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변방에서 다시 중심으로 회귀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반면 자영농 형상의 자연소재시조는 뒤늦게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만,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왜곡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변방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 중심으로 진출하려는 욕망은 반은 성공을 거두지만 나머지 반은 성취할 수 없는 허상이 된다. 그래서 수졸안빈의 미학이 나타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방의 주도권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면, 업유에서 업농으로의 신분적 하강까지를 감수하는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5. 남는 문제들

이상 서울과 시골의 문제를 중심으로 17세기~18세기 자연소재시조의 두 국면을 살핀 바 있다. 이제 그 결론을 요약하고 남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17세기~18세기 자연소재시조에는 ‘서울로 내려온 시골’과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두 국면이 있다. 전자에는 김광옥의 〈울리유곡〉, 조준성의 〈호아곡〉, 진정 만황청류의 강신 관련 작품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이회일의 〈전가팔곡〉, 진청 무명씨 수분에 실린 작품, 위백규의 〈농가구장〉 등이 있다. ‘서울로 내려온 시골’의 작품은 전원과 전가의 형상이 두드러진 반면,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의 작품은 자영농 형상이 부각된다.

17세기~18세기 자연소재시조의 성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우선 그 담당층인 사족의 정치 및 사회경제사적 성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족의 제반 성격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에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피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글은 작품론적 분석을 통해 자연소재시조의 두 국면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자료의 양이 많아야 하지만, 이 글은 그렇지 못한 약점이 있다. 분석대상이 증가할 경우 이들 유형의 작품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를 18세기로 확대할 경우, 사족 이외 중인의 자연소재시조까지 문제 제기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시기 자연소재시조의 구도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 문제는 후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권순희, 『농요로 읽는 <농가구장>의 세계상과 표현 미학』,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연구 어워지기』 하, 태학사, 2003. pp.133-149.
- 金光煜, 『竹所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출판사, 1995. p.115.
- 金時敏, 『東圃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김창원, 『17 1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고시가문학, 고시가문학회, 2006. pp.101-130.
- 신영명, 『전가시조인가, 자연농시가인가』, 『고전문학 사회사의 탐구』, 새문사, 2005. pp.104-118.
- 신영명, 『전원과 전가의 형상』, 『고전문학 사회사의 탐구』, 새문사, 2005. pp.86-103.
- 吳道一, 『西坡集』,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52. 경인문화사. p.342.

<Abstract>

Capital to coming to country and country not coming up to capital

Shin, Young-Myoung

This paper aims to compare meaning of the poetry called 'capital to coming to conuntry' with the poetry called 'country not coming up to capital'

The poetry which have the garden and pastoral imagery is linked with the poetry called 'capital to coming to the conuntry'. In contrary the poetry which have the farm imagery is linked with the poetry called 'country not coming up to the capital'.

The 'sajok' is the author of the nature poetry. To study the nature poertry in 17 and 18 centuries, it is necessary to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position of the 'sajok'.

Keywords : capital to coming to the conuntry, country not coming up to the capital, nature, sajok, garden, pastoral, farm

논문투고일 : 2006년 11월 30일, 심사일: 38일, 심사완료일: 2007년 1월 7일